

# 나눔터

## 차례

신년계획 1997년 월별 활동 계획 .....	2
97 비전을 말한다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상담소 .....	3
97년 여성운동의 과제 .....	4
여기는 상담실 1996년도 상담현황 분석 .....	6
신년기획 PC상담을 시작하며 .....	9
몸 이야기 스스로 선택하는 임신을 위하여 .....	11
조사와 연구 가해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 .....	12
성문화 읽기 '안토니아스 라인'을 보고 .....	14
상담소를 움직이는 사람들 노래도적 .....	15

# 보관용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 우편번호 137-600

일반상담 02-529-4271~2 위기상담 02-573-1888

열 린 터 02-529-4271~2

사무전화 02-576-7128, 576-5513~4 팩스 02-576-7127

**1997년, 이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로 개소 6주년을 맞게 되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내실있는 상담과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담자 지원활동을 강화하고자 PC상담에 새롭게 착수할 것이며, 청소년을 살리는 성문화 창출을 위해 청소년 성폭력 예방 지침서와 비디오를 제작하고 이들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센터로의 도약을 위한 첫 단계로 연구소와 교육원 설립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게 됩니다.

## 1997년 월별 활동계획

- 1 월 상담원 모꼬지, 퇴소자 집단 상담, 나눔터 20호 발간
- 2 월 정기총회, 상담원 모집, 성교육 지도자 강습
- 3 월 상담원 교육, 나눔이·지킴이 모집, 자문위원 전체 워크숍, PC상담 개설, 나눔터 21호 발간
- 4 월 나눔이·지킴이 교육
- 5 월 운영위원회, 연구소 개소, 나눔터 22호 발간, 개소 6주년 기념 음악회
- 6 월 전체 모꼬지, 정신대 수요 시위, 경찰 간담회
- 7 월 연구소 개소 기념 세미나 “청소년을 살리는 성문화 만들기”
- 8 월 상담원 모집, 나눔터 23호 발간
- 9 월 나눔이·지킴이 모집, 영업직 성폭력 예방수칙 발간
- 10 월 기금마련 만찬회, 나눔이·지킴이 교육, 운영위원회, 청소년 성폭력 예방지침서 발간
- 11 월 청소년 성폭력 예방비디오 시사회(성폭력 추방 주간 기념 행사), 나눔터 24호 발간
- 12 월 97년 평가· 98년 계획, 한해 보내기 모임

##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상담소

현장과 이론 접목의 필요성은 상담소가 햇수를 더해 갈수록 절실했고, 따라서 종합센터 마련을 우리의 구체적 과제로 설정하여 올해중에 연구소를 설립하려고 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혼란된 성문화 속에 방치되어 있는 청소년을 생각할 때 이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PC통신 상담의 개설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구적 확대와 더불어 상담소는 기존의 상담 활동을 심화시키기 위한 전문가 상담을 제도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터를 닦아 온 지 만6년, 햇수로 7년째 접어드는 올해 97년도는 연구소 설립을 기점으로 종합센터 마련을 위한 틀세우기를 시작하게 된다. 성폭력 전문 상담소로서의 위상과 전문성 획득이라는 초창기 설정목표 1단계에서 새로운 다음 단계로의 도약이다.

상담소, 연구소, 교육원, 출판사 등이 한 몸체 안에서 하나의 통일된 관점을 갖고 유기적 관계로 활동하는 종합센터를 구상한 것은 상담소 설립 초기부터이다. 진정 살아 있는 상담, 본질적 문제와의 접근, 현실적 대안 모색과 이에 대한 적극적 수렴을 위해

서는 종합센터가 필요하고, 특히 이론과 실천이 함께 접목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실제 많은 경우 숨가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운동단체들이 이론적 뒷받침과 전문성 획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천성을 하나의 주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여성학의 경우 현장과 연결되지 않은 이론적 작업은 현실 변화의 구체성을 갖기 어려워 단지 학문적 영역의 공간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론과 실천이 긴밀하게 접목되어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종합센터 설립을 상담소의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출발했다. 그리고 설립 초기 우리가 예상했던 현장과 이론 접목의 필요성은 상담소가 햇수를 더해 갈수록 절실했고, 따라서 종합센터 마련을 우리의 구체적 과제로 설정하여 올해 중에 연구소를 설립하려고 한다. 연구소가 설립되면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성문제 관련 국가정책, 우리 사회 성행태, 여성중심 성클리닉 모델 개발 등의 연구를 통해 성폭력뿐 아니라 새로운 인간중심적 성문화 창출의 물꼬를 트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97년은 상담소의 역사 속에서 연구소 설립을 기점으로 중



최영애(본 상담소 소장)

합센터 마련 원년의 해가 되는 셈이다. 이번 아니라 올해 상담소는 PC통신 상담을 개설하게 된다. 피해자의 50%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며 가해자의 20%가 청소년이라는 상담분석 결과와 청소년 범죄 중에서 성범죄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는 사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의 혼란된 성문화 속에 방치되어 있는 청소년을 생각할 때 이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PC통신 상담의 개설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구적 확대와 더불어 상담소는 기존의 상담활동을 심화시키기 위한 전문가 상담을 제도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현재 변호사들로

구성된 토요법률상담 지원위원회가 내담자들에게 법적 측면에서 전문적 지원을 해 온 것처럼 심리상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리상담 지원위원회가 올해부터 열림터 내담자상담, 피해자 집단상담, 상담원 수퍼비전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전문적 상담지도와 훈련은 상담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청소년 가해자 연구에 보다 박차를 가하면서 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비디오 제작 등을 통해 새로운 성문화 창출작업에 주력할 생각이다. 이렇듯 새로운 실천과제를 많이 설정해 놓고 있는 97년은 우리로 하여금 상담소 재창립에 버금가는 큰 각오와 열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상담소 6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뜻이 있는 곳에 늘 길이 있었고 뜨거운 열정으로 크고 작은 난관들을 녹여내면서 늘상 하나되어 쉽없이 달려올 수 있었다. 발기인 60여 명으로 출발한 상담소가 이제는 상담원, 지킴이, 나눔이, 자문위원, 이사, 회원, 후원회원, 상근자 등의 다양한 형태로 상담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6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상근자 수도 2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고 일반상담, 위기센터, 열림터를 운영하면서 24

시간 상담을 실시하게 되었다. 자료집 발간, 세미나 개최, 성폭력에방비디오 제작, 수많은 사회교육 활동 및 홍보활동, 성폭력 특별법 제정운동, 김보은 사건 등과 같은 피해자 지원활동 등... 그동안 우리가 해낸 일들을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도 대견할 뿐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초창기의 열정과 각오가 우리들의 가슴에 여전히 뜨겁게 남아있고 갈수록 더 깊어지는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사명감과 여성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헌신적 노력에 의해서 가능했다. 그리고 갈수록 이러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일, 사람, 조직 모든 측면에서의 새로움과 거듭나기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그래서 연구소 개설, PC통신 상담 개설 등의 새로운 과제로 가득차 있는 97년을 설계하면서도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우린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새로운 도약에의 발걸음을 주저없이 내딛는 것이다. 그리고 이 첫걸음이 다음 걸음으로 이어지기 위해 97년에는 상담소 식주들이 함께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 97년 여성운동의 과제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의 개악과 더불어 근로기준법 등 여성관련 조항도 개악될 전망이다. 생리휴가가 폐지될 경우 유급휴가는 축소되고 야간·연장·휴일근로 제한 등 여성보호 조항도 완화될 예정이어서 전반적으로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은 후퇴될 전망이다. 남녀 평등, 여성인권의 발전은 민주주의 발전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성운동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활동에 적극 결합해야 할 것이다.

### 1. 97년 여성운동을 둘러싼 조건들

김영삼 문민정부 출범 후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과 민선자치단체장 시대가 되면서 국가정책과 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민행동이 활발해졌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는 국민의 노력은 96년 12월말 신한국당과 김영삼 정부가 개악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을 야당을 배제한 채 날치기로 통과시킴으로써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여있다. 현정부는 9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인사에 대한 사찰을 하기 위해 안기부법을 개악하였고,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정리해고와 변형근로제 도입 등 노동관계법을 개악시켰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중 여성관련 조항도 개악될 전망이다. 생리휴가가 폐지될 경우 유급휴가는 축소되고 야간·연장·휴일근로 제한 등 여성보호 조항도 완화될 예정이어서 전반적으로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은 후퇴될 전망이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후퇴와 서민생활의 악화는 많은 저항을 불러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왔고, 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잠재적인 불만으로 누적되어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 남녀 평등, 여성인권의 발전은 민주주의 발전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성운동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활동에 적극 결합해야 할 것이다.

### 2. 97년 여성운동의 주요과제

#### 1) 고용평등과 고용촉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48%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의 경우 60~70%를 차지하는 것을 보았을 때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5급, 7급 공무원 채용시 여성고용할당제 실시, 공공직업 훈련기관의 일정비율 여성참여 확대, 파견근로제와 명목시간제 및 임시직 규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육아비용에 대한 사회적 지원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처럼 취업문을 넓히기 위한 활동과

함께 노동시장 내에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 임금, 간접차별 규제, 성희롱 규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여 남녀 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 2) 여성인권 발전

어린이 대상 성폭력·친족간의 성폭력을 규제하고, 성폭력의 개념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죄'로 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친고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서부터 성폭력 예방과 올바른 성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고 법의 정착과 올바른 시행을 위해 시행령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 3)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성차별 요소 제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국민의 노후와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에 독자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여성은(현재 221만 3천 명 가입) 가장인 남성을 통해 국민연금의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금 수급은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집에서 가사와 양육을 도맡아 온 여성에게는 가급급여라고 해서 연 90,030원(95년 기준)이 주어진다. 문제는 남편과 사별할 경우 유족연금을 받는데 이것도 50%로 줄어들고 이혼한 경우에는 아예 받을 수조차 없다. 이혼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혼한 여성에 대해 재산분할 차원에서 독립 수급권이 주어져야 한다. 더구나 평균 수명이 남성에 비해 10년 정도 긴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노후에 혼자 살아야 할 때 자식에 기대지 않고 혼자 살아가려면 개인 명의로 가입하는 기초연금제가 도입되어 노후의 최저생계가 보장되어야 한다.

의료보험의 경우 출산 전후의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이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즉시 개선되어야 하고, 출산 시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자기분담금을 제외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출산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사회적인 재생산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산 전후 3개월 휴가시 소득보장이 의료보험 급여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여성과 농촌 여성에게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 4)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우리나라처럼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이 배제되어 있는 나라도 드물다. 사회 곳곳에 가부장제의 벽이 두껍기 때문에 이를 개혁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그 방법 중의 하나가 할당제다. 할당제는 평등으로 나가기 위한 과도적 조치이다. 정부의 각 위원회에 2000년까지 여성의 비율을 30%로 확대하기 위해 연도별로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고위직 공무원과 정당공천시 30%를 여성에게 할당해야 한다. 95년 당시 정부 각 위원회에 여성비율이 7.2%에 불과한데 이의 비율을 97년에는 1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과도기적인 우대조치가 마무리되고 동등하게 경쟁하는 사회로 돌입하고 있다.

## 5) 정보화 사회에 대한 여성의 준비

정보화 사회는 3F(Fiction, Female, Feeling)의 사회라고 한다. 여성의 장점인 감성이 정보화 사회에서 잘 발휘된다면 여성의 고용이 증대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이다. 반면 정보화 사회는 고도의 기술능력을 요하기 때문에 정보창출 능력과 활용 능력에 뒤처져 있는 여성은 주변화, 비정규직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따라서 여성에게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정보사용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 여성운동의 정보화 등이 주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여성운동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운동 정보를 제공하고 가상공간에서의 여성조직화를 꾀해 나갈 예정이다.

## 6) 통일사회를 위한 준비

분단으로 인한 높은 국방비 지출, 전쟁에 대한 불안은 국민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특히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방위비 삭감운동, 민족화해를 위한 남북여성교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여성평화네트워크 구성, 평화교육 확산 등을 통해 남북대결 구조를 민족화해와 평화구조로 정착시켜 통일 사회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여성운동의 과제이다.

## 7) 여성유권자의 주체적 운동 전개

남녀평등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을 높여 나간다. 10월에 서울에서 여성유권자대회를 개최하고 지역에서도 여성유권자대회 또는 캠페인을 동시적으로 진행한다. 여성유권자대회를 통해 여성유권자 행동지침과 향후 5년간 여성이 바라는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여성 스스로 대통령 후보를 결정해 나가는 운동을 전개한다.

# 1996년도 상담현황 분석

조종신(일반상담부장)

96년도 본 상담소에서는 '내담자 지원체계의 활성화'를 목표로 '상담의 질적 향상과 상담원 재교육'에 주력해왔다. 96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성폭력 상담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본 상담소의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으로 바람직한 결과들을 많이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1〉 96년도 상담현황

(괄호는 %)

	유형		가해자			피해자					소계	고소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성폭력 1779(100)	강간 916(51.5)	일반 강간 867(48.7)	아는 사람 628(35.1)	친족 186(10.5)	아버지, 오빠	1	47	60	4	-	112(6.3)	8
					친인척	13	26	26	7	2	74(4.2)	3
					동네사람	21	23	26	13	-	83(4.7)	31
					데이트 상대	72	27	-	-	1	100(5.6)	7
					직장상사, 동료	101	11	-	-	-	112(6.3)	15
					교사, 강사	9	21	3	-	-	33(1.9)	4
					동급생, 선후배	27	12	3	-	-	42(2.4)	4
					기타	46	17	8	1	-	72(4.0)	15
				모르는 사람	81	58	51	4	1	195(10.9)	63	
				미상	20	10	9	-	5	44(2.5)	8	
				윤간	25	23	1	-	-	49(2.7)	13	
				계			416	275	187	29	9	916
	성폭력 1779(100)	성추행 863(48.5)	일반 성추행 664(37.3)	아는 사람 527(29.6)	친족 122(6.8)	아버지, 오빠	4	24	22	13	-	63(3.5)
					친인척	12	9	23	15	-	59(3.3)	-
					동네사람	15	15	56	78	1	165(9.3)	28
					데이트 상대	9	3	3	-	-	15(0.8)	1
					직장상사, 동료	85	4	-	-	-	89(5.0)	5
					교사, 강사	3	18	23	13	-	57(3.2)	3
					동급생, 선후배	7	3	7	4	-	21(1.2)	2
					기타	30	9	10	9	-	58(3.3)	11
				모르는 사람	33	21	49	27	1	131(7.4)	27	
				미상	2	-	2	2	-	6(0.3)	1	
				강간미수	54	9	5	1	-	69(3.9)	20	
				언어추행	71	1	4	-	-	76(4.3)	8	
		남성피해	8	29	10	7	-	54(3.0)	1			
계				749(42.1)	420(23.6)	401(22.5)	198(11.2)	11(0.6)	1779건	279건		
기타			성문제, 순결	83	72	8	1	3	167	-		
			인신매매	-	1	-	-	-	1	-		
			아내구타	16	-	-	-	-	16	-		
			혼인빙자	20	-	-	-	-	20	-		
			장난전화	9	13	1	-	-	23	-		
			기타	87	35	7	2	1	132	4		
계			215	121	16	3	4	359건	4건			
계			964	541	417	201	15	2138건	283건			
재상담		강간	361	205	227	14	-	-	807	17		
		성추행	147	61	148	94	-	-	450	14		
		남성추행	9	11	3	9	-	-	32	3		
		기타	18	14	-	-	-	-	32	-		
계			535	291	378	117	-	1321건	34건			
총계			1499	832	795	318	15	3459건	317건			

1. 본 상담소는 96년 1년 동안 2138건 3459회의 상담을 하였다. 이는 95년도 1021건 2050회에 비하여 68.7%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해부터 충격적인 성폭력 사건들이 계속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적극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위기상담만을 받던 본 상담소 위기센터에서 7월부터 위기상담과 일반상담을 포함한 야간상담을 24시간 받기 시작하여 상담 건수가 늘었다고 보여진다. 6월까지의 상담횟수는 1259회, 7월부터의 상담횟수는 2200회로 이 중 야간상담이 596회(27.1%)를 차지하고, 위기상담은 634회(18.3%)이다. 성폭력 사건은 증거확보를 할 경우 법적조치가 용이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즉각적 구조를 청할 수 있는 24시간 상담의 개설은 아주 중요한 지원체계이다.

〈표2〉 96년도 위기상담(사건 발생 48시간 이내 사건)

총상담횟수	위기상담
3459회	634회(18.3%)

〈표3〉 96년 하반기(7월~12월) 야간상담 (오후 5시 이후)

총상담횟수	야간상담
2200회	596회(27.1%)

2. 2138건 중 성폭력 피해상담은 1779건으로 전체의 83.2%이며, 이 중 강간이 916건(51.5%), 성추행이 863건(48.5%)이다. 특기할 만한 점은 95년도에 성인 피해상담이 51.1%, 미성년자 피해상담이 48.9%이던 것이 96년도에는 성인 42.1%, 미성년자 57.3%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어린이 피해상담이 95년도 25.6%에서 33.7%로 증가한 점이다(〈표1〉 참조). 어린이들은 주로 집 주변, 학교 주변, 학원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했으며, 교사, 유치원 원장, 통학버스 기사 등에게 당한 피해도 적지 않았다. 더군다나 친족 특히 친부, 의양부, 숙부, 형부, 조부, 오빠 등이 많았는데 거의 위협이나 폭행보다는 애정위장, 금품유인, 속임수 등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판단을 흐리게 한 후 지속적인 피해를 가한 경우가 많았다. 어린이 피해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도 헤어나지 못하는 장기적인 후유증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의지하고 보호받아야 할 친족이나 교사에 의한 피해는 그 후유증이 아주 심각하다.

3. 강간과 성추행을 합한 성폭력 사건(강간미수·윤간·남성피해 제외)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아는 사람인 경우가 1155건(64.9%)이었다. 이 중 친족이 308건(26.7%), 동네사람 248건(21.5%), 직장내 201건(17.4%), 데이트 상대 115건(9.9%), 교사·강사 90건(7.8%), 선후배·동급생 63건(5.4%), 기타 130건(11.3%)이다. 기타 130건 중에는 성직자, 의료인, 아파트 관리인, 통학버스 기사, 학원에 놀러온 사람, 친구의 애인이나 애인의 친구 등이 포함된다.

〈표4〉 가해자가 피해자의 아는 사람인 경우의 유형

아는 사람	친족	동네사람	직장내	데이트 상대	교사, 강사	선후배, 동급생	기타
1155건(100%)	308건(26.7%)	248건(21.5%)	201건(17.4%)	115건(9.9%)	90건(7.8%)	63건(5.4%)	130건(11.3%)

4. 남성피해도 54건(3.0%) 상담되었다. 성인 남자(8건)는 직장내에서 또는 업소에서 남자에게 성관계를 강요받은 사례이고, 청소년(29건)은 상급생, 연장자에 의해 피해를 당했으며 집단에 의한 폭력과 병행되기도 하였다. 어린이(17건)는 태권도 사범, 학교 앞 문방구 아저씨, 동네 할아버지, 유치원 원장 등에 의해 당한 성추행이다. 남성 피해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낮아서, 피해 아동과 부모의 충격이 엄청난데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는 경미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5. 또한 친족에 의해 피해를 당해온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지속적인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본 상담소의 보호시설인 '열린터'에 안전하게 피신하여 전문상담가들의 개별상담, 놀이치료, 집단상담이나 학습, 비디오 시청, 야외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피해 후유증을 치유하였다. 이들은 같은 고통을 지닌 피해자들과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서로 지지하고 돕는 가운데 고립감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상실되었던 신뢰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밟고 있다.

6. 후유증 극복을 위하여 고정적으로 전화, 서신을 통하여 지속상담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96년도 재상담은 452건(21.1%), 1321회로서 이 중에는 5회 이상 상담이 75건, 10회 이상 상담이 23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면접은 285회 이루어졌다.

〈표5〉 96년도 상담 지원방법, 후속처리 통계

지원방법	총 상담 횟수	상담건수	재상담	면접상담	서신상담	토요법률 상담	고소(상담 후 고소)	경찰연계	법정지원	진정서, 상 담일지송부	병원연계	자료지원
총계	3459회	2138건	1321회	285회	72회	113회	317건(34)	54건	23회	12회	188회	85회

7. '토요법률상담'에서 고소나 재판,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문의를 한 사례가 704건(39.6%)이었다. 이 중에는 이미 고소를 하고 진행 중에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원을 바란 사례가 279건, 내담자가 16명의 토요법률상담 변호사와 직접 면담하여 자문을 받은 사례가 113건, 경찰 연계를 받은 사건이 54건, 상담 후 고소한 사건이 34건, 진정서나 일지를 재판부에 보내준 경우가 12건, 법정지원팀이 법정 동행과 참관을 한 사건이 23건이다. 그외에도 많은 내담자들이 고소장 작성, 증거확보, 법정진술요령, 무고죄에 대한 대처, 성폭행한 친 부모부터의 친권 양도 소송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표5〉 참조).

8. 성폭력 사건인 경우 산부인과나 정신과 증거가 진실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사건에 연루되지 않으려는 의료진들의 기피로 진단서·소견서 발급이나 법정증언이 무척 힘든 것이 현실이다. 상담소에서는 법적 증거확보나 후유증 극복을 위해 뜻있는 의료진들과의 연계를 통해 증거채취, 응급조치, 후속처리 등의 지원을 하였다. 병원연계가 총 188회로 이 중에는 성폭력 피해로 질이 파악된 11세 어린이가 4시간의 응급수술로 회복된 사례, 즉각적인 연계로 정액을 검출하여 가해자를 검거한 사례, 성추행만을 주장하는 의부의 가해를 의사의 법정증언으로 강간임을 입증하여 7년이 선고된 사례, 증거를 확보하기 힘든 성추행의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어린이의 증세를 법정증언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포함된다(〈표5〉 참조).

9. 성추행 상담의 경우가 95년 40.0%에서 96년도에는 48.5%로 증가하였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부끄러워하며 사건을 덮어두려 하였는데, 이제는 어떤 종류의 성폭력 행위도 참지 않고 적극적으로 법적 해결책을 찾거나 보상을 받으려는 의지가 확산되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다. 이 중 언어추행이 특기할 만한데, 전화뿐 아니라 음성 사서함, PC통신, 인터넷 등 각종 신종매체에 의한 성폭력이 성행하고 있고, 통신매체에 의한 음란행위가 발신자 추적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언어추행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직장내 성희롱이 많이 상담되었는데 법적으로까지 진행되지는 않더라도 상담 후 적극적인 대처로 회사내에서 제재 조치가 취해지는 경향이 늘고 있다.

10. 본 상담소의 상담 중에는 피해자 본인상담 이외에 부모나 주위 사람에 의한 대리상담이 많다(〈표6〉 참조). 보호자인 부모 외에 친척, 동료, 교사, 의사, 이웃, 타 상담기관 종사자 등이 피해자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문의하였다. 이에 본 상담소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처를 하도록 지침서, 예방비디오 등을 제작하여 내담자에게 자료를 제공하였으며(85회),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집단상담 등을 실시하였다. 가해자측 상담도 68건이 있었는데 가해자 가족들이 겪는 충격이나 부끄러움, 청소년 가해자의 선도에 대한 문의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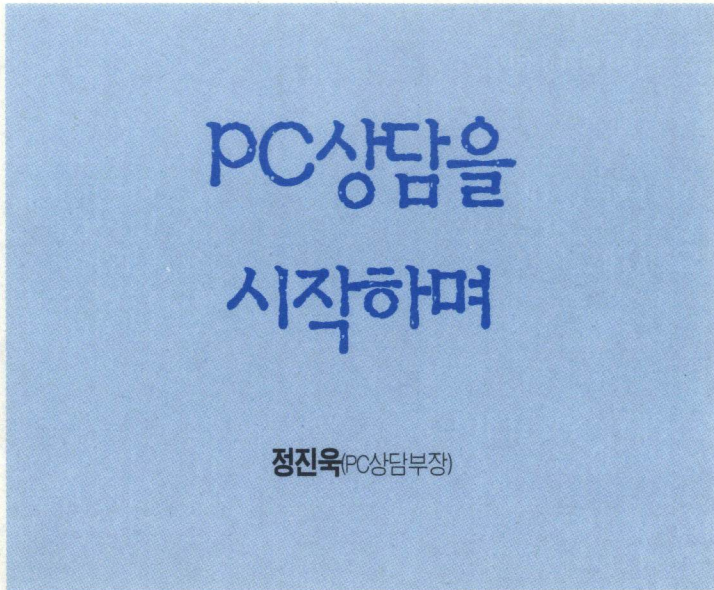
피해자 본인이 겪는 충격이나 후유증뿐 아니라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받는 충격도 심각하므로 이들에 대한 상담도 중요한 부분이다. 또 이들이 피해자를 올바르게 도울 수 있다면 피해를 극복하는 데 좋은 지지세력이 될 수 있으므로 대리상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6〉 내담자 유형

전체 상담	피해자 본인	보호자	기타(친척, 동료, 이웃, 교사 등)	가해자측
3459회	1537회(44.4%)	1052회(30.4%)	802회(23.2%)	68회(2%)

〈표1〉의 기타 항목에는 장난, 협박전화에 대한 상담이 23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기타 항목에는 상담소로 걸려오는 음란장난전화가 132건 포함되어 있다. 방학이나 시험기간중에는 청소년들의 장난전화가 폭주하고 각 상담소에 이야기 내용을 바꿔가며 장난, 음란전화를 하는 성인의 수도 꽤 나타났다.





최근 컴퓨터 통신 이  
용자수가 급증함에 따  
라 통신은 이제 각종 흥  
보나 활동, 특히 정보교  
환에 있어서 우리생활

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본 상  
담소에서도 내담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3월 초부터 PC통신을 통한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PC상담 서비스는 대부분이 익명성을 요구하는 성폭력 피해자  
들이 보다 손쉽게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  
어 이용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담소  
의 활동을 보다 많은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이고,  
성폭력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성문화  
를 만들어가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PC상담에 관한 아이디어는 95년 여름 나눔이 모임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는 나눔이들 사이에서, 상담소  
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신을 활용하지는 제안이 제기  
된 것이 그 시발점이었다. 그 후 PC상담에 대한 논의로 진척되어  
그해 9월 20일 PC통신팀이라는 이름으로 장윤경 선생님과 6명의  
자원활동가들이 상담소에서 첫 모임을 갖게 되었다.

팀원들은 우선 다른 상담소의 PC상담 운영방식에 대한 자료조  
사를 통해 본 상담소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논  
의를 거친 후 IP(Information Provider : 통신상의 정보제공자)에  
제공할 자료준비에 들어갔다. 그리고 자료준비가 마무리된 후에  
는 담당상근자의 부재로 한동안 겨울잠에 들어가 있다가 96년 7  
월부터 본격적으로 IP개설을 위한 활동에 들어가 지금에 이르고  
있다.

통신 내에서 제공될 상담소 IP는 위의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크게 상담실, 자료실, 휴게실 그리고 안내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자.

### 1. 상담실

[상담에 들어가기 전  
에]에서는 실제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두

어야 할 성폭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자료는 성폭력에 대  
한 개념, 피해실태, 그리고 후유증과 대처방법 등을 제시하여 내  
담자들이 반드시 상담을 통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일반 이용자들에게 성폭력에 대한 올바  
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올바른 성지식 알고 싶어요]에서는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채 성적 호기심만을 자극하는 온갖 정보가 무분별  
하게 난무하는 현실에서 이용자들이 성에 대한 바른 정보를 획득  
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실제 상담은 [상담이 필요하세요]에서 할 수 있으며, 통신상의  
'편지쓰기' 기능을 이용한 비밀편지상담(E-Mail)으로 이루어진다.  
전화상담 및 상담소가 제공하는 다른 상담 서비스들과 마찬가지로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철저히 엄수되며, 상담은 본 상  
담소의 야간상담원(지킴이)이 담당하게 된다.

### 2. 자료실

자료실은 이용자들이 성폭력에 관한 여러가지 자료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먼저 [이런 상담사례가 있습니다]에  
서는 어린이 성폭력, 직장 내 성폭력 등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상담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성폭력의 실태와 대처방법,  
그리고 상담소가 제공하는 도움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  
록 구성했다. 그리고 [성폭력 유형별 자료]에서는 상담소에서 발  
간한 자료집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상담소 판매자료이  
므로 부득이하게 유료서비스로 제공된다.

[나눔터]는 본 상담소 소식지인 <나눔터>의 기사를 간추려 제  
공하며 나눔터의 좋은 내용들을 이용자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하여(RAPE)

☎ 02-529-4271

[ 상담실 ]

- 11.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 12. 올바른 성지식 알고 싶어요
- 13. 상담이 필요하세요?

[ 휴게실 ]

- 31. 알립니다.
- 32. 발언대
- 33. 대화실
- 34. 상담소 사람들
- 35. 반쪽이의 그림판(만화)

[ 자료실 ]

- 21. 이런 상담사례가 있습니다.
- 22. 성폭력 유형별 자료
- 23. 나눔터
- 24. 상담소 제작 비디오
- 25. 성문제 관련기사
- 26. 관련 자료 목록

- 41. 상담실 안내
- 42. 회원가입/정보
- 43. 회원만 보세요

- 99. 운영자 메뉴

록 하였다. 그리고 [상담소 제작 비디오]에서는 본 상담소에서 제작한 어린이 성폭력 예방비디오와 직장 내 성희롱 예방비디오를 정지화상으로 보여주어 일반인들에게 비디오를 홍보할 계획이다. 또 [성문제 관련 기사]에서는 매일 5대 일간지의 성문제 관련 기사를 선별하여 제공하며, [관련자료 목록]에서는 상담소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목록을 소개한다.

3. 휴게실

휴게실에서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유발언대], 이용자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대화실]이 있으며, [상담소 사람들]에서는 상담소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자원활동가, 자문위원, 상근자 등)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리고 그동안 나눔터 등에 게재되었던 반쪽이의 그림을 [반쪽이의 그림판]을 통해 화면상으로 제공하여 보는 즐거움을 더하였다.

4. 안내

안내에서는 [알림판], [상담소 소개] 등을 통해 상담소의 각종 행사들을 홍보하고 상담소의 역사, 조직구성 등 상담소를 이용자들에게 소개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또 [도움기관]을 마련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도움기관(병원, 변호사, 기타 단체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상이 현재 상담소 IP를 구성하고 있는 메뉴이며, 운영해가면서 이용자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용을 끊임 없이 변경,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PC상담 서비스는 현재 프로그램 개발중에 있으며 3월 초에는 컴퓨터통신상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PC상담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질 높은 상담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양질의 풍부한 자료를 준비하여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이 성문제 전반(특히 성폭력)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외부의 의견을 상담소 내부로 수렴해내는 통로로써 통신을 활용하고, 차차 통신 내에서의 토론을 활성화시키는 등 이용자와 상담소간의 능동적인 의견교류에도 힘쓸 예정이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상담실을 심리상담, 법률상담, 의료상담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통신상에서의 내담자 집단 상담도 준비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여 본 상담소 IP는 통신 내에서 작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현재 IP운영위원팀은 이성제를 팀장으로 조재은, 이상현, 김인영, 최성호, 신석원 이렇게 6명의 자원활동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격적인 IP운영을 위한 준비작업에 열심히 뛰고 있다.

# 스스로 선택하는 임신을 위하여

편집실 정리

사회적 승인, 신분증명 등과 같은 필요 때문이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고 돌보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자유롭게 임신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성에게나 아이에게나 행복한 일이다. 그런데 아이가 없는 사람도, 임신중인 사람도, 또 이미 아이를 낳아 키우는 사람도 (남성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 다른 여성과 살고 있는 사람,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혹은 혼자 생활하면서 아이를 기르고 있는 사람 등) 모두 어머니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당혹감을 경험하게 된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사람조차도 왜 아이를 낳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여성들 중에는 완전한 한 인간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받기도 전에 생물학적, 사회적 압력 때문에 어머니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느낌을 안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리고 어머니로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속박한다. 어머니가 되고 나면 자신의 성장을 위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기 전까지 임신을 보류하거나 평생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정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성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

여성에게 어머니가 되라고 강요하는 사회적 압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각자의 선택은 도외시하고, 여성에게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 아이를 낳아야 마땅하다는 일반적 사고방식이 있다. 우리 사회의 경우 여성을 가정에서는 단순히 일만하는 가사노동력으로써, 직장에서는 시시하고 장래성 없는 업무를 하는 노동력으로써 이용한다. 또한 이 사회는 피임이나 중절 등 임신조절의 수단을 합법적이면서도 싼 가격에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젊은 시절부터 누구로부터도 들은 적 없는 강한 성적 감정에 갑작스럽게 압도당하고 있기때라서 생식과정이라는 생물학적 능력의 포로가 되어버린다.

사회적 압력은 내재화되어 심리적 억압으로 전화(轉化)한다. 여성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이 학생이나 노동자나 정치활동가나 의사 등이 되기보다는 어머니가 되는 쪽이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쉽다. 여성들 중 다수가 임신하는 것은 원하는 바대로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달리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머니가 되는 길은 가장 저항을 적게 받는 길이다. 할 일을 찾거나 하는 일에 지치면, 여성들은 자기 존재의 위기를 뒷전에 미루고 어머니라는 '공인된' 역할에 안주할 수 있는 시기로써 임신 및 어머니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다리게 된다. 하지만 여성들 내부의 본질적인 자기가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여성이 실제로 어머니가 되었을 때, 적어도 때로는 혼란이나 불행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어머니로서의 자기(자기의 일부)가 아닌 전자기(全自己)가 그 존재를 인정해달라고

발버둥치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주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아이를 낳을 것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먼저 우리가 자신의 생활 속의 심각한 결함을 메꾸려고 아이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를 확실히 구분하는 일이 필요하다. 무엇인가 다른 방법으로 그 구멍을 메꿀 수 있는 대안이 확실히 있는데도 아이를 원하는 것이라면 그 욕구는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다음으로, 우리가 어린이를 좋아하는 성격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친구네 아이를 돌봐주거나 아이들의 놀이집단이나 유아그룹의 일에 관여해보거나 해서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아야 한다. 어쩌다 아이를 돌봐주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맡아서 자신이 진정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택해야 하고 어린이와 함께 지내는 데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자신의 마음을 확인해보아야 한다. 아이를 출산해 본 사람, 양자를 맞은 사람, 아이가 없는 사람, 다양한 종류의 친구들과 대화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더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은 자녀양육의 환경이다. 일부일처제의 핵가족만이 인정되는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유일한 장소는 집이다. 그러나 고립된 가정에서 어머니 혼자서 자녀양육을 전담한다는 것은 아이나 어머니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반드시 임신하기 전에 남편 혹은 아이의 아버지가 될 사람과 대화하여 자녀를 갖는 기쁨뿐만 아니라 자녀양육을 분담하는 일에 관해 몇 가지 기본적인 동의사항을 서로 확인해보는 일이 중요하다.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많은 것이 우리 개인의 힘을 넘어선 곳에 있다. 따라서 이런 사회를 변혁시켜 가기 위해 결집하여 행동하고, 아이를 낳을지 말지, 또 언제 낳을지를 자유롭게도 명쾌하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날 우리들 중 많은 여성들은 자기 직업에 충실할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가 되는 것이 도리인지, 아이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돈을 벌어야 옳은지 아니면 아이의 뒤치다꺼리를 해주어야 옳은지 등과 같은 양자택일을 재촉받고 있는데, 이런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작업장에는 보육소가, 지역에는 지방자치 단체가 관리하는 24시간 보육소가 필요하다. 스웨덴처럼 아버지의 육아출산 휴가도 필요하며, 반나절 노동이 인정되어 아이 부모가 충분히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녀를 불문하고 수입이 보장되도록 하여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여성이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없애야 한다.

이 글은 Boston Women's Health Book Collective의 《Our Bodies, Our Selves》 중 일부를 옮긴 것입니다.

가해자 연구 3

# 가해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

최희진(조사연구부원)

성폭력의 문제에 대한 연구들 중에는 피해자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성폭력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가해자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행동유형은 어떠한지, 여성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면, 가해자나 일반 남성들의 교육에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성폭력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폭력법을 연구한 박현이(1996)의 논문과 미국 강간법들의 조사와 분석 중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Scully(1990)의 연구를 근거로 하여 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글은 법적 구속으로 감금되거나 혹은 보호관찰대상이 된 가해자만을 조사한 것이므로 범법을 피한 다른 가해자의 특성이 포괄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사실 성폭력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여성을 억압하고 가치절하하는 사회구조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학습된 행위이다. 물론 그런 사회에서도 모든 남성이 성폭력을 가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성폭력을 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지을 수 있는 특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어떠한 특성들이 가해자(이 글에서 가해자는 강간범을 지칭한다)들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Scully는 가해자들의 어린 시절, 가족관계에서의 다양한 경험, 결혼 등 여성과 맺은 관계, 교육 정도, 직업, 성력(sexual history), 심리적인 성장배경, 전과 등을 중심으로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같은 질문에 대한 다른 범죄자들의 대답과 이들의 대답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그리고 가해자 연구결과 밝혀진 것은, 성폭력의 경우와 같이 가해자에 대해서도 잘못된 통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선 가해자들의 개인사에 있어서 그들의 어린 시절은 다른 범죄자들(성폭력에 관련된 범죄가 아닌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 어떤 연구자들은 어린 시절 여성지배적인 가정에서 자란 남성이 여성에 대한 거부로 여성을 성적으로 폭행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많은 가해자들은 엄마와의 관

계에서 친밀감을 느꼈다고 대답했다. 오히려 아빠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적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아직도 남성이 지배적인 가정이 더 많은 우리 사회에 왜 남성에 대한 폭력이 나타나지 않는지 설명할 수 없다.

둘째, 어린 시절의 가정폭력이나 학대경험에 관한 조사결과 '어린 시절 폭력에 많이 노출되면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폭력을 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일축시킨다. 어린 시절 가정폭력이나 성적 학대를 받은 가해자 수는 극소수였고, 이런 생각은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받은 여성들이 왜 폭력성을 띄지 않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셋째, 여성과의 관계나 성경험에 있어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 기회가 박탈되거나 부족할수록 성관계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강간을 저지르게 된다는 생각은, 반대로 성적 기회가 박탈된 여성의 경우가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또한 많은 조사결과에 의하면 강간할 당시 가해자들의 성관계 기회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된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 비행청소년들의 생활에서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애인은 따로 있으면서 단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지배를 남성다움으로 받아들여 여성을 강간한다.

넷째, 세번째의 경우와 비슷하게 가해자들은 정신질환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강간을 자행한다거나 강간은 술과 마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주장들도 설득력이 없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신과적인 문제로 치료나 입원을 한 경우는 소수이고, 가해자들은 마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가해자들은 그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기소되었던 적이 있는 상습범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과기록으로 가해자의 특성을 유형화하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 아니다. 모든 가해자들의 어린 시절이 아주 행복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린 시절의 다양했던 배경들이 강간을 하게 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쯤에서 우리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의 개인사에서 강간을 일으키는 절대적 요소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대신 여성 또는 성폭력에 대한 태도나 신념을 알아보는 것

이 보다 효과적으로 강간범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고리가 된다. 이는 Scully의 말처럼 태도를 알아본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무엇이 있는가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정도'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첫째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태도가 성폭력과 관련되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가해자들을 면접했을 때 그들은 전통적인 성역할만을 여성의 역할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녀 대학생들에 대한 조사와 비교하여 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여성이 남성보다, 남녀대학생이 가해자들보다 훨씬 더 여성주의적이다. 또한 여성에 대한 태도를 세 가지로 나누어 측정해보았는데 그것은 ① 직업적으로 여성은 임금, 교육 등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하다, ② 가정적으로 가족 내에서의 재산권, 수입에 대해 부인과 남편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을 분담한다, ③ 전통적으로 여성은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더 도덕적이어야 하며, 음담패설이나 술을 입에 담지 않아야 하고, 남성의 경제력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가해자 조사결과를 보면 각 경우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데, 첫번째와 두번째 경우는 교육정도나 범죄종류를 불문하고 전통적인 시각에서 자유로운 시각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세번째 경우에는 가해자들이 거의 동일하게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 내의 교육으로도 세번째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거의 변화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 모두 직업과 가정적인 측면에서는 자유로운 시각으로 바뀌었지만, 전통적인 측면 즉,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여성에 대한 별다른 시각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남성들이 가진 성규범의 이중성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결과이다. 우리나라 비행청소년들의 조사에서도,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서 굴욕감을 느끼게 되면서 성폭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그러한 여성에게는 자신들의 생활방식인 폭력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모든 일에서 남성이 주도권을 잡아야 하고, 여성은 순종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남성우월주의 사상(이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열등하다는 여성비하감에 바탕을 두고 있다)과 이에 따른 전통적인 여성관에 기인하는 것이다.

둘째, 강간을 하는 남성들이 전통적인 여성다움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한 남성성'에 대해서도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이는 곧 성폭력과 관련된다고 보여진다. Silverman(1970)은 강제적인 남성다움의 네 가지 모습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① 거칠고 두려움 없이 싸우고, ② 활동적 체력을 개발하고, ③ 성적 체력을 중시하고 여자를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며 ④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런 폭력적 모습들이 가해자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폭력성을 정당하게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에게는 자신이 행한 성폭력이 여성과

의 관계에서 정당한 폭력을 사용했다는 정도로 받아들여질 뿐이다. 이러한 강한 남성상은 강간범이든 일반 남성이든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적대감이 높을수록 강한 남성상에 대한 집념에 의한 폭력성이 더 많이 나타나며, 가해자들에게 있어서는 좀더 강도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폭력성은 우리나라 비행청소년들의 행동에서도 보여지는데, 남성다움을 성기중심적으로 받아들여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성적 행동을 과장하여 표현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용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정당하다고 믿는다.

셋째로 가해자들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있다. 많은 강간범들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성폭력 사건을 보는 목격자들도 피해자를 비난한다. 이런 잘못된 태도들은 강간이라는 범죄를 폭력이 아닌 상호관계적 상황으로 보면서 가해자나 피해자의 인식과 행동, 상호간의 폭력 또는 무기의 사용, 여성의 저항 등을 강간의 요소로 인식하게 만들어 온 우리 사회의 허위인식(강간에 대한 신화)의 결과라 하겠다. 자신의 행위가 강간이라고 인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성이 저항했다면, 또는 여성이 보다 정숙했다면 강간 행위가 시도되거나 지속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곤 한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신화를 대중매체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스스로를 사회화시킨다.

이상의 맥락에서 볼 때, 가해자들의 유형은 그들의 여성에 대한 태도나 남성다움을 표현하는 폭력성, 남성중심의 가치구조를 유지하는 사고에 의해 어느 '정도' 특징지어진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의 도구가 되는 세 가지 점들이 전적으로 가해자 개인의 태도나 신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비록 가해자들의 개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개인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지만 그런 바뀐 사고를 지지하고 이끌어줄 전체 사회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관념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한 번 더 확인된다고 하겠다.

**도움받은 책**

박현이(1996), 《비행청소년의 여성관과 성폭력과의 관계:보호 관찰대상자(성폭력범)의 사례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정책학과 석사학위논문

Silverman, Ira(1970), "Compulsive Masculinity and Delinquency", Unpublished Dissertation, Ohio State Univ.

Scully, Diana(1990), *Understanding Sexual Violence: A Study of Convicted Rapists*, Boston:Unwin Hyman.

## '안토니아스 라인'을 보고

김보연(나눔이, 성문화 읽기 회원)

여성으로서의 내 앞의 삶을 꿈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어떤 사람은 꿈을 꾸는 것이 무에 그리 힘든 일 이냐고 물어올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여성들은 마냥 꿈을 꾸고자 한다고 해도 꾸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꿈을 꾸려고 하는 순간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되물어 보아야 하고, 너무나 현재의 상태에 길들여져 있던 우리들로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의 모습조차 그려지지 않는다(꿈은 다분히 시각적인 것이니까...). 어쩌면 이러한 꾸념조차 이제 너무 지겹다고 말하는 여성도 있을 것이다.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학문에서, 관계 속에서 현재의 벽을 깨고자 하되 그 앞을 그려볼 수 없다는 것은 우리들의 신념까지 흔들리게 만든다. 이러한 현실에서 <안토니아스 라인>은 벽을 깨고 난 뒤의 '모습'을 제시하여 주고 약해진 우리의 신념을 다시 굳건히 해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을 만하다.

<안토니아스 라인>에서는 많은 벽들이 깨어져 있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이제 우리도 조금씩 깨뜨려 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거대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 벽이 산산이 깨져 있다. <안토니아스 라인>속의 여성들은 자신들의 선조들이 안으로 내재화시켰던 주변성, 수동성 등의 벽으로부터도 이미 벗어나 있다. 또한 자신들의 어머니들을 무력화시켰던 경제력이라는 것도 경작할 땅을 소유함으로써 해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벽들의 허물어짐과 함께 우리들이 그려보고자 했던 삶의 구도가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들은 분명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기존 가치체제 안의 삶에서 벗어나 있지만 또한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이고 만족스러워 보인다. 그리고 그들 역시 인간에게 부여되는 생과 죽음의 굴레 안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점의 강조는 자칫 우리들과 분리되어 생각할 수 있는 안토니아(家) 사람들을 우리와 동일화시키는 데 일면 기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동일화 안에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안토니아를 찾아나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 안의 안토니아는 어떠한 규정성으로부터도 벗어나 있으며 자신의 건강한 삶의 욕구에 충실하게 반응하고 주변과 조화되는 삶을 찾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화'라는 것이 우리를 영 불편하게 만든다. 분명 영화 속의 안토니아들은 그들 서로와는 물론이고 어찌 보면 그들과는 반한다고 할 수 있는 남성들과도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많은 관객들이 <안토니아스 라인>이라는 영화를 이전의 다른 영화에 비해 편안하고 재미있게 보았다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이 조화스러움을 마냥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앞서의 '이미 깨어진 벽'에 기인한다. 안토니아가의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벽을 깨어버린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미 주체성을 획득했고,

경작할 땅도 가진 사람들이 다. 그들은 영화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것들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현실의 우리들은 어떠한가?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내재화된 또 다른

자아와 의식의 싸움을 벌여야 하고 안토니아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공되어졌던 땅을 가지기 위해 수많은 제도와 인식을 상대로 대립해야 한다. 우리에게 자신의 선택을 정신적·경제적으로 뒷받침해줄 안토니아도 없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안에서 우리는 조화될 수 있는가?

그러나 이에 대답하기 앞서 우리는 마린 고리스 감독이 말하는 '조화'의 의미를 되살펴보아야 한다. 과연 마린 고리스 감독은 기존 가부장제를 포용하고 그들과의 조화를 지향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안토니아가의 구성원들을 살펴봄으로써 얻어진다. 안토니아가의 사람들은 미혼모, 동성애자, 정신박약아, 교회의 권위를 거부하고 나온 신부, 마을사람들(일반의 가부장제 질서권 안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농부 등이다. 그들은 모두 가부장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마린 고리스 감독의 성숙한 여성주의 의식을 볼 수 있다. 페미니즘이라는 것을 단지 남녀의 대립구도로 생각하던 사람들에게는 안토니아가에 남성성이 들어가 있음이 껴나 새로웠을지 모르나 페미니즘이란 단지 남자라는 한 생물체에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세워진 많은 사회적 기제들과 인식과의 싸움인 것이다. 그리고 기존 제도들에서 주변화된 사람들과의 연대가 마린 고리스 감독의 영화에서 우리가 느끼는 '조화'라는 단어의 정체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은 다니엘의 딸 테레사가 결국은 안토니아가 밖에서 자신의 상대자(?)를 찾지 못하고 안토니아가 안으로 들어오는 데서 좀더 뒷받침된다. 그녀는 안토니아가 밖의 사람들(가부장제 질서권을 따르는 사람들)과는 조화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화'의 의미에 따라 우리는 앞서의 질문에 흔쾌히 대답할 수 있게 된다. 조화될 수 있다고. 분명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이 영화와 가지는 거리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자 하는 세계의 한 가능태를 이 영화를 통해 바라볼 수 있었고 이를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대의 끈을 다시금 부여잡게 된다.

아직 우리는 꿈을 꿀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앞의 벽을 좀더 세차게 두드려 깨야 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꿈은 못되더라도 이러한 꿈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모호하게 관념으로 지향하던 세계를 그림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은 현재의 우리들의 작업에 힘을 주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이 영화가 반갑게 여겨진다.

# 노래도적

**박병현**(지킴이, 노래도적 회원)

“먼 길 걸어온 우리에게 언젠가 변함없이 곁에 있던 노래 있어……”

우리 주변에는 많은 노래가 있다. 일할 때 신명을 더해주는 노래, 노동의 고통을 풀어내는 노래, 사랑의 기쁨을 담은 노래, 이별의 슬픔을 읊은 노래, 웃으며 즐겁게 부르는 노래, 눈물과 함께 듣는 슬픈 노래, 이런 노래, 저런 노래…….

수많은 노래와 함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래들이 다 건강한 노래는 아니다. 똑같은 아픔을 노래해도 그 근원을 찾아 치유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노래가 있는가 하면 마약과 같이 고통을 순간적으로 잊게 마취시키는 노래가 있다. 우리는 건강한 노래를 찾아내서 부르는, 그리고 그런 노래를 널리 알려 많은 이와 함께 부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 노래도적이다.

노래도적은 94년 9월에 결성되어 지금까지 상담소 개소 기념행사와 위기센터 개소 기념행사, 열린터 개소식 등 상담소의 각종 행사와 세계 성폭력 추방주간 행사, 정신대 수요

시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집회 등 여성계와 관련된 여러 집회에서 공연을 하면서 상담소를 대표하는 노래패로 자리잡았다. 또 아름답고 건강한 성과 사랑을 다룬 노래책 발간을 계획하기도 했지만 현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유보중인 상태다. 이처럼 노래도적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매일매일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젊은 모임이다. 술 좋아하는(좋아하기만 함) 진선이 형, 나침반 역할의 연실이 누나, 혼자 바쁜 혜정이 누나, 두목에서 짚린 병현이(글쓴이 '나'), 따뜻하고 다정한 희라, 제일 예쁜 영옥이, 짐 캐리를 능가하는 표정 연기의 선정이, 근사하고 멋진 종현이, 막내 재롱동이 상희, 그리고 후원회원 병준이 형, 이렇게 현재는 10명이 노주희 선생님의 품안에서 한 패거리를 이루고 있다.

노래도적은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두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바로 뜨거운 열정과 끈적한 애정이다. 우리 도적들은 모두 음주자무와 오만잡기에 관한 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 평균 26.3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한번 모이면 모임에서의 4시간 노래, 모임 후의 2시간 노래방, 3시간 술, 2시간 춤, 1시간의 포켓볼을 씹 없이 해내고, 그리고 나서도 뒤 풀이를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누가 이기라 천하무적 노래도적!!! 또 우리는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1주일 이상 보내면 뼈빠가 불이

날 정도의 애정을 가진 모임이다.

여기서 잠시 이 글을 읽으시는 우리의 팬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이렇게 놀 때에는 끝내주게 놀지만 노래도적에 주어진 임무 하나는 확실하게 해낸다는 사실. 이러한 책임감이 바로 오늘의 노래도적을 가능하게 해준 자세이고, 앞으로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해줄 우리의 저력이다.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직장인인 바쁜 노래도적이지만 우리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서건 단 한 명이 되더라도 꼭 나타나서 제 역할을 해내는 천하무적 노래도적을 따뜻하게 지켜봐 주길 바라며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후원을 기대한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상담소 노래도적 게시판에 연락처를 남기면 된다.

“한 사람의 노래가 만인의 가슴을 울리니, 그대 새벽을 노래하라. 어둠을 뚫고 아침을 맞는 신새벽을……”



## 한국성폭력상담소에는 이런 비디오가 있습니다

###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

#### 비디오의 내용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실질적인 상황묘사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성희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누구나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 손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실었다.

대상 : 여고 졸업반 학생, 예비 직장인, 남녀 직장인  
상영시간 : 30분  
가격 : 1만 8천 원

### 내 몸은 내가 지켜요

#### 비디오의 내용

어린이 성폭력 예방비디오. 어린이들이 상황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형극과 노래극을 통해 다양한 상황을 제시한다. 전체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 몸은 소중한 것이며, 내가 아끼고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상 : 유치원, 국민학교 학생  
상영시간 : 30분  
가격 : 1만 8천 원

### 비디오를 구입하려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여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우송료 2천 원을 포함하여 2만 원을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입금이 확인되는 대로 우송해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2-576-7128
- 온라인 구좌번호
  - 국민은행 009-01-1176-632
  - 농협 037-01-194301
- (받는 곳 : 한국성폭력상담소)

## 성폭력은

인권에 대한 유린입니다.  
 혼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상담소로 전화하십시오.  
 함께 풀어가갈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529-4271~2  
 야간상담, 위기센터 573-1888  
 사무전화 576-5513~4, 576-7128  
 팩스 576-7127 / 전리안,유니텔 ID : KSVRC  
 인터넷 주소: ksvrc@chollian.dacom.co.kr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 4월 개소 이래 지금까지 1만 2천4백 여 회의

상담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를 돕고 있으며,

24시간 위기상담을 받아

증거확보와 의료, 법률조치를 취하는 위기센터,

열린터(보호시설) 등의 시설과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후원을 기다립니다

상담소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비가 필요합니다. 보내주시 후원금은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후원을 기대합니다.

후원회원이 되시거나 후원금을 기부하실 분은 아래의 구좌로 입금하시고 전화주십시오.

☎ 576-5513~4 / 담당 : 정진욱 부장

국민은행 009-01-1176-632 농협 037-01-194301(예금주 : 한국성폭력상담소)

##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받습니다

냉난방기, 옷장, 컴퓨터, 프린터 등

## 알림판

### 나눔터 구독신청을 받습니다 .....

계간 나눔터는 성폭력상담소의 소식지입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오.

1년 구독료는 5,000원 입니다.

(담당 : 이윤상 부장 ☎ 576-5513~4)

### 기부금 내주신 분 .....

최재철

###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

3월 PC상담 개설

3월 31일 자문위원 워크숍

5월 31일 개소 6주년 기념 음악회

## 우리 상담소의 심벌 ☎ 은 '여성들의 자매애'를 상징합니다

본 상담소 심벌인 ☎ 은 여성을 나타내는 ♀ 가 3개 모인 것으로, 이는 여성들이 손을 잡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힘을 모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쪽에서 비스듬한 다리모양은 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벌의 색깔은 '여성'과 '자매애'를 상징하는 자주색입니다.

**서단법인 한국성폭력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 여성들과의 상담활동 등을 통해 아픔을 함께 나누고 건강한 삶을 되찾게 하는 데 큰 뜻을 둔 단체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모든 상담활동,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개발 등의 교육활동, 소식지, 교육자료, 연구물 간행 등의 홍보·출판활동, 사례분석, 실태조사, 자료의 연구, 수집 등의 조사·연구활동, 나라 안팎의 기관이나 단체들과의 연대활동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상담활동과 나눔이, 지킴이 활동, 후원회원, 나눔터 회원, 기증 등의 방법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작은 실천과 큰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예방활동으로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 더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이사** 김학중 · 문해란 · 민병진 · 박금자 · 오세민 · 윤장순 · 이종걸 · 조영환 · 최영애

**감사** 세우사/배자하 회계사/차재능

**자문위원**

**상담** .....  
 기독교학/서광선  
 심리학/박애선 · 이윤로 · 이장호 · 이혜성 · 조혜자 · 장연진  
 여성학/한정자 사회복지학/한인영 사회사업학/이원숙

**법률** .....  
 검사/김옥철 법학/한인섭 변호사/강기원 · 고순례 · 권성희 · 김상화 · 박성호 · 박찬운 · 신기남 · 이명숙 · 이백수 · 이상경 · 이유평 · 이종걸 · 이항아 · 임종인 · 장재호 · 장철우 · 정감생 · 정성광 · 정연순 · 조영환

**의료** .....  
 가정의학과/김종구 법의학/강신몽 권일훈 · 문국진 · 서중석 · 이경룡 · 이윤성 · 최영식 산부인과/김주필 · 김현식 · 김홍배 · 남소자 · 문영규 · 민용기 · 박경자 · 박금자 · 박양실 · 박종민 · 안명옥 · 윤경 · 이길여 · 이옥주 · 임용택 · 정경원 성형외과/정영덕 소아정신과/박영숙 · 소은희 · 최보문 신경정신과/김광일 · 김동순 · 김병후 · 김정일 · 남정현 · 양창순 · 윤애리 · 이나미 · 이수경 · 정동철 · 최진숙 외과/오세민 임상병리과/강정옥 · 문해란

**연구** .....  
 교육학/김인수 사회학/박진숙 사회학/김준호 · 심영희 · 조형 여성학/이재경 · 장필화 · 조주현 인류학/정병호 철학/이상화 · 정대현 통계학/이용재 영문학/강경화

**홍보 출판** .....  
 동시통역/김지명 시사민평가/최정현 신문방송학/김응숙 · 최선열 언론인/김철기 · 전여옥 여성학/박해란 · 오숙희 연극인/김지숙 · 손숙 출판/강학중 · 이인자

대표이사 · 박금자  
 소 장 · 최영애